

서울YWCA

2021 3/4
vol.611

서울YWCA

2021

회보

SINCE 1922

• SEOUL YWCA •

• SEOUL YWCA •



우유팩과 캔을 재활용 휴지와 묘목으로 바꾸어주는 서울Y 환경운동은 재활용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1994. 4. 1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 환경운동

1990년대 서울Y 환경운동은 재활용, 포장쓰레기 줄이기, 녹색소비에 중점을 두고 활발하게 펼쳐졌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우유팩과 캔을 재활용 휴지와 묘목으로 바꿔 주는 행사를 통해 깨끗이 씻어 말린 620톤의 우유팩과 캔을 모았다. 생활 속에서 환경지키기를 실천하는 녹색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설악산에서 전개하고 환경여행과 생태기행을 실시했다. 재활용 리폼 의류와 대물림 생활용품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을 전시하는 재활용운동도 주목을 끌었다.



북한산 생태기행(1995. 6. 6) 신일중학생 40여명은 북한산 자연생태를 살펴보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월
공동기도

하나님,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우중충하고 고난과 시련이 무시로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써보아도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4월
공동기도

하나님, 봄은 기쁨을 감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싹과 꽃들은 새로운 생명이 도래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를 거미줄처럼 동여매던 영원한 상실과 죽음의 공포는 부활의 빛 앞에서 스러졌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담대하게 인생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서울 YWCA

vol.611
2021년 3·4월호

- | | | | |
|----|---|----|--|
| 2 | 숫자로 보는 서울Y | 20 | 예술과 여성
인상적 순간을 기록한 거리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 |
| 4 | 나를 살리는 말씀
응답으로 임한 성경말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 22 | 소비자 상담
어렵고 복잡한 해외직구
현명하게 도전하자 |
| 6 | 제99회 정기총회 특집
총회보고
총회사
2021 사업계획
2020 사업보고 | 24 | 서울Y 소식
1·2월 뉴스
3·4월 행사안내
3·4월 캘린더 |
| 14 | 환경과 여성
작은 것들과 우정을 나누며 | 29 | 알림터 |
| 16 | 기독교인과 여성
교회의 평등 리더십 | 32 | 후원 소식 |
| 18 | Y 이슈
제4회 이연배 봉사상 수상
이길연 고문변호사 | 36 | 하나님의 정원 |

〈서울YWCA〉 2021년 3·4월호 통권 제611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1년 3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서현정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이종미 성지희 발행처 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응답으로 임한 성경말씀



조중남
직전회장

지금도 그 성경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쿵 쿵거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다시금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내 고민과 소원을 아시며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2015년 서울Y 회장이 되어 특별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나라 전체가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행사를 진행해야 할지, 중단을 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법률자문을 의뢰하니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기획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이사회에서 행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평소에 자주 하지 못했던 새벽기도에 매달렸다.

이사회날 새벽, 머리맡의 성경을 펼치며 '하나님, 저에게 답을 보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맘을 가졌다. 그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9:62)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품고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고선혜 이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다. 그냥 밀고 나가자"라고 동의해 주신 덕분에 안건은 무사히 통과되었다. 공연은 다행히 성황리에 마쳐졌고, Y 활동에 귀하게 쓰일 후원금도 얻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소가 안 된 유일한 공연이기도 했다.

회장이 되면 매사 기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선배 증경 회장님들의 이야기가 이유있는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작은 기도단으로 시작된 YWCA는 67년만인 1922년 조선에 뿌리를 내리며 많은 선각자의 기도와 열정에 힘입어 곧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초창기 농촌운동, 문맹퇴치, 여성을 계몽하고 기술교육을 시키며 애국사상을 고취한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은 대단한 것이었고, 지금도 Y는 여성운동, 회원운동, 청년운동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이다.

많은 선배님과 이사님, 위원님, 회원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YWCA가 100주년, 그 이후에도 늘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받아 신명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의 요구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해결에 앞장서며, 이웃과 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쉬지 않기를 소망한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시편 94:19 새번역)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존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베풀어주시는 위로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으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 건강과 평화, 사랑이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권예선
청년기자단
한양대 4년

뒤돌아보면 한글을 뎀 이후부터 계속 말씀묵상(QT)를 해왔다. 초등·중등과정 모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자랐는데, 언제나 Q교시는 말씀묵상 시간이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신앙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아침마다 말씀묵상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기독교 동아리와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나의 신앙생활은 스스로 부단히 애쓰지 않아도, 주변 환경에 의해 지켜져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는 시간 동안 학교도, 교회도 못가니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을 받아만 먹던 내 신앙생활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온 걸까?' '말씀묵상은 교회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했던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려는 노력은 왜 없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나에게 신앙생활은 가족의 전통이고, 평생의 문화였으며, 교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라는 건물에 있지 않다.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위로에 있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투두리스트(To Do List, 해야 할 일)도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스스로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있다.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곧,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산다.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친구와 함께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한다. 8시에 줌을 켜놓고, 30분간 말씀 묵상을 한다. 자기 전에는 성경 통독을 한다. 11시 반에 줌에 접속해 각자 20분간 말씀을 읽고, 10분간 나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마태복음 4:4) 육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눈뜨자마자 30분, 눈감기 전 30분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날마다 해야 할 공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나의 고백이자, 나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Y회원님이 이 글을 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조용하고도 깊은 시간을 보내자' 하시는 초청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 초청에 반응하는 회원님이 되시길 마음속 깊이 바란다. ♪



총회보고

제99회 정기총회

회장 이유림, 부회장 한혜영·조연신 선출

2021년 사업계획 · 예산안 통과



회장 **이유림**

서울Y는 제99회 정기총회 본회의를 1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오후 3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목적 제창, 표창, 2020년 감사·결산·사업보고가 이어졌으며 202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약 137억 원이 통과됐다.

2021년 사업 주제는 '깨어있는 여성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이며 운동정책은 기후위기대응운동, 젠더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이다.

이유림 회장은 총회사를 통해 '회복 Recovery! 서울 YWCA 99년!'을 선언했다. 따뜻한 소통을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성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조직문화로 영성이 회복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YWCA 창립 정신의 바탕이 되는 신앙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새기며 작은 예수의 길을 걷는 신실한 여성 제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1월 2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유림 회장이 재선임되었으며 새 임원을 선출했다. ♪



제1부회장 **한혜영**



제2부회장 **조연신**



제1서기이사 **이복희**



제2서기이사 **정수경**



제1회계이사 **최한나**



제2회계이사 **김재신**

새 이사 선출

현장투표(1월 26-27일), 전자투표(1월 28일)를 통해 총 282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진 선거에서 새 이사 6명이 선출되었다.

당선이사 (가나다순)

김명희 이유림 장영옥 전현숙 정선덕 황성연



총회보고

감사패 증정 · 시상

2020년 서울Y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근속 지도자와 실무자, 회원증모를 많이 한 회원을 표창했다.

감사패(가나다순)

예수소망교회 (주)에이블씨엔씨 (주)엘지생활건강
(주)예술치유연구소 앨리스와토키
KIDB자금증개(주) 하나금융나눔재단
권오형(전 감사) 김재신(이사) 송현정(회원)
염현경(이사) 이연배(증경회장) 이지선(이사)
지복임(위원) 한혜영(부회장)

봉사상

50년	박정희
40년	김우영 이숙현
30년	김옥자 전복남 차지현
20년	김정호 배은경 이재숙 정준선 지복임 한미미
10년	김수련 이순우 최한나
1,000시간 이상	박금주 김명숙 정연순

근속상

20년 근속고문	권도웅
10년 근속강사	백승순
10년 근속실무자	임한솔 정은하

회원증모 개인상

조연신 우영숙 이유림 김혜옥 염현경 양선희
이인순 한혜영 이종미 이행자 김재신 박진선
정수경 배은경 최한나 장영옥 송길례 성지희
김명희 김진숙 이복희 임혜원 김양선 이은령
박미용 황혜진 전영지 정선덕 김보민 민혜경
황성연 박찬주 나순복 김선덕 최 불 김선희
오점희 정승원 이옥희 김은희 강민아 조정현
이경연 조종남 백승자 신윤용 심혜영 유은숙

이연배봉사상

이길연(고문변호사)





총회사

회복의 한 해, 함께 만나 웃을 수 있기를



이유림 회장

근면과 성실, 충직을 상징하는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립 99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어려움 속에서도 정기총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 참여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고 아무리 반가워도 손을 잡아볼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함께 모여 활동하며 울고 웃을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진 대변혁의 시대를 맞으며 서울Y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도전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서울Y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현장 기반 활동을 과감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기독교여성주의 프로그램 등을 줌과 유튜브로 진행하며 보다 많은 회원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에도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의료진과 택배기사에게 응원 키트를 전달하고 코로나 관련 여성 이슈를 정리한 시스템리포트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회원과 함께하는 기도운동을 6주에 걸쳐 펼쳐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2020년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을 거듭하며 서울Y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Y 창립 100년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의 선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운동체로 재정비해야 해야 할 때입니다. 탐욕의 문명

을 공생공락의 문명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립 정신의 바탕이 되는 신앙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새기며 작은 예수의 길을 걷는 신실한 여성 제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31 새번역)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심해져만 가는 갈등과 분열은 이 땅의 평화를 요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선한 힘에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서울Y를 기대합니다.

회복 Recovery! 서울YWCA 99년!

서울Y는 올해의 중심어로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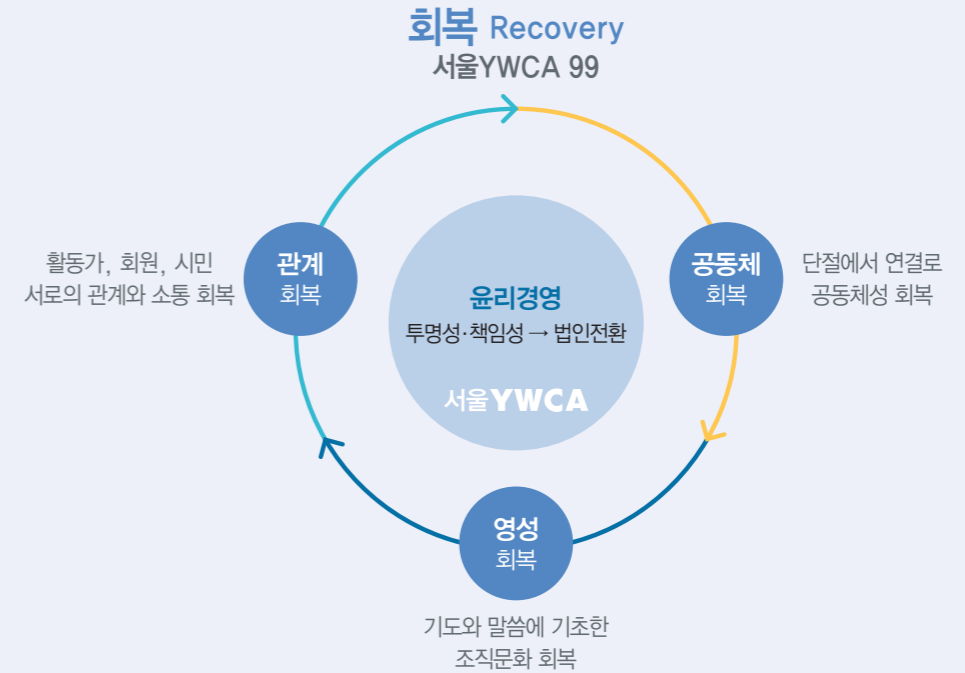
따뜻한 소통을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성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조직문화로 영성이 회복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과 서울YWCA가 함께 이끌어 나갈 '깨어 있는 여성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에 지속적인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법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며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쁜 봄날 회원건강대회에서, 화창한 여름날 특별행사, 풍성한 가을날 큰잔치에서, 따스한 겨울날 성탄예배에서 함께 만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계획

2021년 사업계획



기후위기대응운동



-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플라스틱 줄이기
 - 시장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저감 활동
- 즐거운 불편운동
 - 실천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시민참여 캠페인
- 에코서포터즈양성
 - 서울Y 생명운동 활동가 조직·운영

젠더평등운동



- 기독교여성주의 운동
 - 기독교여성주의 운동 플랫폼 구축
 - 크리스천 청년여성리더십 개발
- 젠더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젠더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 1020 세대를 위한 비폭력 관계 프로그램

평화통일운동



- 평화통일 교육과 의식 확산
 - 청년 평화활동가 양성
 - 청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 DMZ 청(소)년 평화행진
- 사회문화교류 확대
 - 평화 여성 네트워크 형성
 - 탈북 청소년 교류



사업보고

2020년 사업보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며 온라인 운동 영역 확장



양선희 사무총장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요한복음 1:16)

서울YWCA 창립 98년!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총으로 서울Y 98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과 관계, 실천들이 멈추고 바뀌고 달라진 해였습니다. 눈빛과 미소, 몸짓으로 서로를 환대하던 만남이 멈췄고, Y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방식이 바뀌었으며, 회원·시민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는 물론 현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서울Y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 정의·평화·생명이라는 Y 활동의 본질을 다시 새기며,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회원·시민과 소통하며 활동했습니다.



사업보고

운동정책

YWCA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정책은 기후위기대응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으로 전개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운동은 플라스틱 줄이기에 힘썼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포장재 개선 프로젝트 ‘플라스틱 줄이기 응원해요’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여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 폐기물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대안적 소비운동,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에너지 소비감축 운동과 시민 캠페인도 활발했습니다.



‘소환해(소비로 환경을 지키는 해법)’ 유튜브 영상 제작

성평등운동은 성평등 미디어운동과 기독교성주의 운동 중심으로 펼쳤습니다. 성평등 미디어운동은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썸네일, 웹툰 등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성차별 사례를 발굴, 심의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성주의 운동은 기독교성주의 연구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사업 확장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1020세대의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교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으로 성평등한 교회 만드기에 주력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

평화통일운동은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를 지속했으며, 랜선으로 만나는 DMZ 평화행진과 북·중·러 접경지역 피스브릿지 평화통일캠프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평화를 말하고 체험하며 평화통일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피스브릿지 평화통일캠프 ‘청(소)년 다시 기록하고 기억하다’ 러시아 연해주 안중근 단지동맹기념비 앞



부속시설

부속시설은 관리규정 제정, 본부 운영감사 도입으로 부속시설 운영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봉천·영등포·노원·강남지부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신속한 온라인 방식 전환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방과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강남다함께키움센터가 개소되어 지역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시설로 전환된 누리봄은 공동작업장 '봄봄' 운영, 신규 주거지원사업으로 폭력피해 여성들이 자활을 꿈꾸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활동

코로나19 대응활동은 Y 응원키트 전달, 대구Y 지원, 코로나 대응 즐거운 불편운동,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여성 이슈를 조명하는 시스템 리포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 기도운동 'YWCA와 함께! 기도와 함께!'를 펼쳤습니다.

회원활동

회원활동은 온라인 기반 활동의 확장을 목표로 회원 홈트 영상 제작, 대학생·청년 마음 돌보기, 저탄소와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 팀블러 들고 다니기 캠페인, 신박한 정리 등 다채롭고 참신한 내용으로 회원과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서울Y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과 회원소통 온라인 채널 활용으로 회원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며 그린인문학,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Y 중점운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지도력·훈련 개발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훈련은 독서모임과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교육훈련, 정책워크숍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기독교여성시민사회단체인 서울Y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찰하며,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활동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강남 폭력예방 여론확산사업 DO RUN! DO LEARN!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YWCA 회원기도운동
With YWCA With Pray! YWCA와 함께 기도와 함께!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We always pray for you
우리가 언제나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Coronavirus can't beat us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Anything we can help you with?
YWCA가 도와 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예배와 종교모임은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에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크리스천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나만 오지 교회로 나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YWCA 회원기도운동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신입 실무자 훈련



홍보·재정

홍보는 디지털 세대 청년홍보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Y 홍보의 참신한 변화를 꾀했으며,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Y 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센터 운영의 축소·중단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모사업의 유치, 임대사업의 예산 달성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창립 100년 준비

창립 100년을 위한 준비는 비전모금 분과, 회원조직 분과, 기도 분과, 100년사출판을 구성, 서울Y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찾고, 회원활동과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창립 100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도분과의 활동은 성서통독과 말씀 공부, 중보기도회로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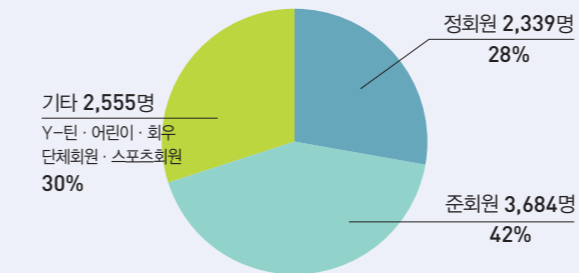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며 창립 98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퍼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서울Y에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이사·위원·회원·자원봉사자·실무활동가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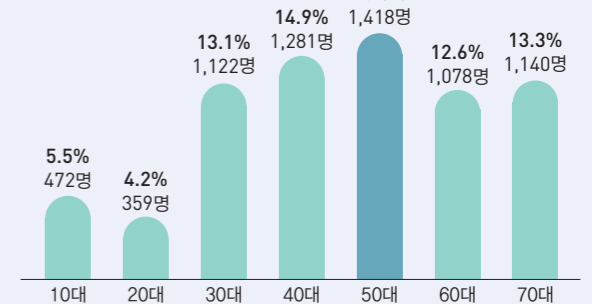
서울YWCA 청년홍보자문위원회

2020년 회원 현황

회원 8,578명



【연령별 회원분포】



※ 미확인 - 1,708명(19.9%)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작은 것들과 우정을 나누며



박혜영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고요한 밤바다와 조용한 펭귄의 움직임

호주에 가면 펭귄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나는 동물원이 아닌 대자연 속에서 야생의 펭귄을 만나본 적이 없기에 부푼 마음으로 필립 아일랜드에 갔다. 바다가 끝나고 백사장이 펼쳐진 곳에 너른 수풀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페어리 펭귄들의 거처였다. 자세히 보니 작은 집들이 여기저기 수풀 사이에 숨어있었다. 관광객들은 예민한 펭귄을 위해 최대한 숨죽인 채 지정된 곳에 가만히 앉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내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여름밤이었다. 언제나 오나 싶어 목을 빼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펭귄들이 해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로 깊고 컴컴한 바다에서 튀어나온 이 흰 물체들은 갈매기보다도 작은 크기의 가녀린 펭귄이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인데, 크고 검은 바다와 작고 연약한 흰 몸뚱이를 보고 있자니 날마다 반복된다는 이들의 귀가야말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적처럼 느껴졌다. 모래로 올라온 펭귄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새끼들이 기다리는 수풀로 달려갔고, 몇 마리의 성급한 새끼들은 해변까지 뛰어나와 애타게 부모를 찾기도 했다.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은 펭귄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바다에서 만난 무리들과 어울리느라 새끼는 뒷전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고요한 밤바다와 조용한 펭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요정을 본 것 같은 심정이었다. 물속에서 길을 잃지도 먹히지도 않고 밤마다 살아 돌아온다는 것, 넓은 백사장에서 점처럼 박힌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것, 비슷비슷한데도 그 가운데 자기 새끼를 알아본다는 것, 자연에서 마주한 펭귄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저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나는 돌아온 뒤에도 가끔씩 그날 밤의 펭귄을 떠올리곤 한다. 야생의 삶은 저토록 용감하고 의젓하며 재미나기도 한 기적의 연속인데, 왜 인간사회의 하루하루는 불안과 걱정, 울분과 두려움으로 그 기적이 잠식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문학동네 펴냄, 488쪽

로이는 미네컬 강가에서 나누는 벨루사와 아무의 사랑을 통해 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적 차별과 경계가 대자연 속에서는 얼마나 시시한 것이며 인간이 욕망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도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들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들려준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생명체들

로이는 미네컬 강가에서 나누는 벨루사와 아무의 사랑을 통해 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적 차별과 경계가 대자연 속에서는 얼마나 시시한 것이며, 인간이 욕망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도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들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들려준다. 마음에서 크고 강한 것들에 대한 욕망이 물러나게 되면 비로소 눈부시게 아름다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마치 멀리 호주의 밤바다에서 마주친 작은 펭귄이 그날 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큰 것만 쳐다보던 눈을 들어 더없이 작은 것들에게로 돌리게 되면, 그리고 그 작은 생명체들이 모두 자연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날이 모두 기적 같은 하루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놓친 것은 돈과 권력 같은 크고 강한 것들이 아니라 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천천히 기어가는 애벌레, 빗방울이 떨어지는 강물, 푸르른 창공을 날아가는 새, 별빛과 달빛과 같은 작은 것들이다. 기적은 내가 산 주식이 폭등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페어리 펭귄이 날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 일어난다.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채우고 싶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작은 것들과의 이런 우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

교회의 평등 리더십

남성 중심의 교회, 이대로 좋은가?



강호숙 박사
기독교인문학연구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다. 이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동등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의 성직자 중심의 직분 위계를 뒤집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외친 종교개혁의 ‘만인사제설’의 기본 토대 위에서 있다. 만인사제설은 개인의식과 인권, 민주주의와 남녀 평등사상을 일깨웠다.

교회의 남녀평등 리더십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이다.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는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여성, 여성과 교회,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여성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또 유대 사회가 당시 인종 차별, 신분 차별, 성차별이 당연했던 시대였음에도,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했다는 것(갈 3:28)은 복음의 평등성과 인격성, 변혁성을 간파하게 한다.

여성 목사 안수 반대하는 보수 교단

작금의 교회에서는 남성들이 교회 헌법을 통해 교회조직과 제도를 만들고 신학 담론과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면서 젠더 불공정,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합신·고신 교단은 ‘여성 안수 반대’를 내세워 남성들만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여성 안수를 인정한 통합교단도 교회의 젠더 권력이 불평등하기는 마찬가지다. 제104회 여성 총대비율(2019)은 1,500명 중 26명으로 1.7%에 불과하며, 여전히 남성 목사를 보조하는 종속 리더십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교회가 여성에게 복음적 역할의 자유와 대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교회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과 ‘양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하는 인권침해다.

특히 보수 교단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전 11:2-16),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전 14:33-36), “여자는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말라”(딤후 2:8-15)라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여성 성직’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 문맥상으로 볼 때, ‘머리(케팔레)’는 ‘통치자, 지도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원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하며, 남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동등한 존재(고전 11:12)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돌지니라”(고전 11:10)의 ‘권세(엑수시아)’는 능동적 권세를 의미하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를 마땅히 가져야만 한다”로 재번역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부여한 능동적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성서가 쓰여질 당시는 완고한 가부장 사회로 일부다처제였다. 그에 따른 가부장적 성경해석을 현대에도 이어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전 14:33)”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설교하지 말라’로 해석하는 것은 남성 직제중심의 성경해석일 뿐이다.

여성의 입장과 견해, 교회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독일의 신학자 케제만(E.Käsemann, 1906-1998)에 따르면, 신약성경에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뚜렷한 전문적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서 교회 직제와 관련한 단어로서 ‘디아코니아’와 ‘오이코노미아’ 등이 있는데, 이는 ‘봉사’와 ‘섬김의 직무’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지, 권위나 통치의 신분적 위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 리더들도 희생하며 섬기는 자로서 청지기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인간에게 향한다는 것에서 신학과 인간학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소외될 수 없는 권리의 주체로서, 각각의 주체가 인격적으로 인정되어야 자유와 사랑 가운데서 연합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대표 참여의 평등’을 의미하는 젠더 정의 개념과 성인지 감수성이 급부상하는 시대이다. 교회의 평등 리더십은 생존전략이요, 그리스도 복음의 인격성과 변혁성을 담아낼 ‘새 부대’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의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이자 기독교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 1928-)은, 교회는 최고의 자유와 최상의 평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요새로서 사회적 인권 보장과 남녀파트너십에 공헌해야 하며, 남녀 유기적 협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교회의 직무와 대표직에서 여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복음적 원리를 바탕으로, 여성의 입장과 견해를 교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권과 대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대표 참여의 평등’을 의미하는 젠더 정의 개념과 성인지 감수성이 급부상하는 시대이다. 젠더 평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남성들이 독점해온 언어 권력(성경해석과 설교)과 의사결정 권력(교회법과 제도)을 여성들과 공유해야 하며, 여성 정치 할당제, 대표직 참여, 여성리더십 역량이 발휘되도록 실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교회의 평등 리더십은 생존전략이요, 그리스도 복음의 인격성과 변혁성을 담아낼 ‘새 부대’라고 생각한다. 남녀 평등한 교회에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을 꿈꿔 본다. ♪

제4회 이연배 봉사상 수상
이길연 고문변호사

두드린 문을 열어준
서울Y에
감사를 전합니다



“무슨 봉사를 했다고 상까지 주시나요.”

처음엔 기쁜 마음이었는데 ‘봉사상’이라 하니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한다. 올해 총회에서 이연배 봉사상을 수상한 이길연 변호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로 서울Y와 함께하고 있다. 현장개정, 계약관계, 법인전환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으로 서울Y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다. 젊은 여성 변호사에게 가까이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주었던 서울Y에 도리어 더 감사하다는 이 고문의 Y 사랑 이야기와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에 대해 들어봤다.

이연배봉사상은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YWCA 목적에 따라 서울YWCA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김과 나눔의 봉사활동으로 YWCA 리더십의 모범이 되는 자원지도자와 회원에게 시상한다. 이연배 증경회장이 최초 1억원을 출연하여 2015년부터 격년으로 수여하고 있다.

서울Y와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1997년부터 로펌에서 지적재산권법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1년경 개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젊은 여성 변호사였고 지적재산권 분야만이 아닌 좀 더 세상을 배우고 싶어 여성단체의 문을 두드렸는데, 서울Y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법률정보도 전하고 생생한 삶의 모습도 만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Y 고문변호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활동 초기에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였고, 봄에 열리는 걷기대회에 가족과 함께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매년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인상적입니다. 꾸준히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도 특별하고, 늘 의욕 넘치는 임원단이 바통을 이

어받아 소임을 다하려는 모습 또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Y가 연합회로부터 분리된 독립법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봉사를 지속하시는 힘은 무엇인지, Y의 매력은 무엇이기에

계속 활동을 이어가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어찌어찌하여 15년까지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서울Y 고문 일을 딱히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Y는 제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를 때에 기회의 다리가 되어준 고마움의 대상이라고 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간간히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울Y 특징도 모른 채 인연을 맺었는데, 2005년에 성령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여성과 청년 운동을 하는 서울Y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후배 청년여성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원리로 만드시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시는지를 늘 생각한다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 이상하게도 쉽게 풀려버리는 경험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굳이 여성 후배들에게 전한다면, 묵묵히 이겨내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이견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삶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이와 같은 불균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투쟁이나 저항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창립 100년을 맞는 서울Y에게 당부의 말씀 전해주세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설립 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와 과제를 거치고 지금도 직면한 상태일 것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울Y가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정관을 비롯한 각종 하위 규정까지 체계적인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서에서 각종 계약 문제나 법률문제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필요한 시점에 자문에 응해줄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개인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목표와 바람 나눠주세요

새해 첫날도 어제의 다음 날이고, 내일의 전날일 뿐입니다. 이는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달력에 따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어제보다 좀 더 기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더 충실해져야 하니, 먹고 일하는 것을 선물로 여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최신 법률 동향을 살핍니다. 이 단순한 목표는 뜻밖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서 갑자기 2025년으로 점프한다고 하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생각입니다.!

인상적 순간을 기록한 거리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



비비안 마이어
Vivian Maier (1926. 2. 1-2009. 4. 21)
자화상 연도 미상
(작품 보관 번호 VM19xx 04205-01-MC)

19세기 말 카메라의 발명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알리는 신호였다. 장 보드리에르는 사진은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기록 보관의 역할로 그쳐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말과 반대로 사진은 예술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기록, 즉 다큐멘터리적 시각과 미학적 차원의 예술 구현을 동시에 이룬 작가인 비비안 마이어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대도시 거리의 일상의 순간을 남다른 조형미로 담아냈다. 그러나 마이어의 작품은 존재 자체도 모른 채 세상의 시선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지만 2007년 경매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긴 치마에 남성용 구두를 신고 거리를 포착

유모가 직업이었던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기록은 사실 많지 않다. 극도로 사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성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지낸 사람도 없었고, 자유 시간의 대부분은 거리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면서 마구 사진을 찍어댔을 뿐이기 때문이다. 마이어는 1926년 프랑스인 어머니와 오스트리아-헝가리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국 뉴욕에서 출생했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보냈다. 1939년 어머니와 함께 일시 미국에 들렀다가 프랑스로 돌아간 후 다시 1951년 홀로 뉴욕으로 돌아와, 세 아들이 있는 가정의 유모로 자리 잡고 미국인으로 살아간다. 아이들은 마이어를 엄마처럼 생각했으며 독신인 그는 모성애적 감성 또한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은 그의 남은 생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된다. 비비안이 처음 카메라를 접한 것은 1949년 6X9 필름 양식의 아마추어 박스 카메라인 코닥 브라우니 카메라로 프랑스 남부 알프스의 풍경과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부터다. 이 카메라는 초점 제어가 없고 조리개 조절 장치도 없었으며 보이는 화면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휴머니티스카카데미 원장

도 작아 예술사진에는 부적합했다. 그 후 1952년 독일제 비싼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로 바꾸면서 작업에 극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사진은 정사각형 형식으로 촬영되었고 정밀함과 환상적 구성으로 거리 장면의 자발성을 포착했다. 목에 카메라를 두르고 긴 치마에 남성용 구두를 신고 활기차게 거리를 걸으며 적극적으로 셔터를 눌러댔지만 똑같은 장면을 두 번 찍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의 눈은 예사롭지 않았고, 거리의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도시의 건축물들의 구조적 조형성의 장대한 순간을 잡아내었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시선

1956년 비비안은 시카고 교외의 고급 주택가의 한 가정에 유모로 고용된다. 이곳에서는 그에게 작은 암실과 개인 욕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진을 인화하고 자신의 흑백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고용이 끝나자 자신의 영화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1970년대에 마이어는 컬러 사진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의 작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시선의 대상은 인물에서 서서히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인형이나 도로 연석(緣石)에서 발견되는 물건, 신문, 낙서 등으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버려진 일상의 물건들에서 보여지는 미학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그의 작업은 점차 추상적으로 변한다. 마이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고 가는 곳마다 호기심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 또한 높았기에 1951년부터 1965년 사이 캐나다, 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곳곳을 혼자 여행하면서 이국적인 풍광과 더불어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시선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매우 감각적인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비비안 마이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자신의 소중한 물품(네거티브, 인화사진, 롤



1955년 5월 5일 뉴욕 (작품 보관 번호 VM1955W00565-06-MC)

필름)이 든 박스들을 창고회사에 보관하고 노숙자 생활을 한다. 그러다 뉴욕에서 돌보던 성인이 된 세 소년의 도움으로 원룸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들은 아파트 월세와 생필품을 대주었다. 마이어는 자신의 작품들이 창고 임대료 미납으로 2007년 경매될 때까지 그 존재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 비비안 마이어는 2008년 얼음판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건강이 악화되어 2009년 세상을 떠난다.

마이어의 작품을 경매받은 사람은 존 말루프(John Maloof)로 시카고 경매장에서 마이어의 작품을 산 후 다른 이들로부터 산 작품들까지 90퍼센트의 마이어 작품을 수집하여 마이어 컬렉션을 만들었다. 마이어가 남긴 작품은 방대하여 10-15만장 가량의 네거티브, 300장 이상의 인화된 사진, 수백 개의 롤 필름, 홈 무비, 오디오 등이다. 그의 작품은 www.vivianmaier.com에서 볼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해외직구' 현명하게 도전하자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 제한과 비대면 소비가 생활화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주저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많은 국외 쇼핑몰이 한국어 서비스를 도입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언어적 제약, 세금 문제 등 각종 제약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절차와 이를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43명(74.1%)이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43.1%)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정리_ 김보민 소비자환경팀 간사

사례1 해외 현지 배송 중 물품이 분실됐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W씨는 1월에 해외 쇼핑몰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지(미국)에서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쇼핑몰에 이의를 제기하니 쇼핑몰 현지 배송업체에 직접 문의할 것을 안내받아 배송업체 측으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배송대행 :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해외 현지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배송대행지(배대지) : 해외직구를 할 때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

Y-상담 쌤's tip 이렇게 물품이 분실된 경우 온라인 پلیس 리포트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물품 미수령 입증자료로 현지 경찰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도난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해 보상받는 방법인데, 지역에 따라 온라인으로 پلی스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사례2 당장 신으려고 구입했는데, 해외직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Y씨는 오픈마켓에서 '배송비 무료' 문구를 보고 7만원에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2주가 되어도 오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해외배송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Y-상담 쌤's tip 최근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늘었으나 국내 구매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대행(해외배송)'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 등을 통해 구매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오픈마켓별로 해외 구매대행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 상품 상세설명을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3 구매 바로 다음 날 취소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C씨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LED 무드등을 구매했다. 다음날 친구에게 비슷한 제품을 선물 받아 바로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해외 현지에서 물품구매가 진행되어 주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C씨는 맞춤 제작 상품도 아니고 구매 다음 날 바로 취소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묵묵부답이다.

Y-상담 쌤's tip 구매대행은 국내거래와 달리 주문 후 즉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소·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이 된다 해도 반품비용(수수료, 현지 배송료 등)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현명한 '직구인'이 되는 팁!

- 1. 관세·부가세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관세·부가세·배송비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합산과세'란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입했다라도 '동일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누어서 구입하자. 물품 개수별 배송료나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최종 지불 가격을 확인하자.
- 2. 자가사용 기준(면세통관범위)을 확인한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육포, 주류, 향수 등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자.
*자가사용 기준 : 본인 사업의 목적이 아닌, 순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의 기준
- 3. 사이트와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용 후기가 없는 경우 등을 잘 확인한 후 구입하고, 구매 후에 주문 내역 등을 꼭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마련하자.
- 4.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때에는 업체와 대화한다**
판매자, 소비자가 아닌 제3자가 물품을 수령했을 때, 물품의 불량이나 배송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물품의 경우 배송대행지 업체에 상품 검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보험을 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배송대행지 사이트의 다양한 안내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5. 충분한 정보를 통해 피해를 미리 방지한다**
해외직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잘 활용하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다양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꼭 확인해 보자. crossborder.kca.go.kr

2021 신년예배

서울Y는 1월 4일 온라인으로 신년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열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17절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조정민 목사(베이지교회)가 전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사역이 아닌 삶을 기쁘게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예배 후 이어진 신년하례에서는 이유림 회장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문을 소개하며, 새해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법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서울Y는 1월 27일 대한화장품협회, 뷰티기업(로레알코리아·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LG생활건강), 유관기관(자원순환사회경제·자원순환사회연대)이 함께하는 화장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에 동참했다. 기업들은 '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RECYCLE), 석

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REDUCE), 리필 활성화(REUSE),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REVERSE COLLECT) 달성을 위한 10대 액션플랜을 실행한다. 서울Y는 이니셔티브 성과관리, 방향성 논의 등 시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등포 신규 교육프로그램 신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1년 고용노동부 통합심사에서 6개 기존 과정과 함께 '크리에이터 필수 영상편집 입문'과 '직업상담 실무' 2개 신규과정을 승인받아 올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 콘텐츠 설계와 제작,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편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영상편집 과정은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

아동자치활동

강남청소년수련관 청담다함께키움센터는 1월 29일 아동자치활동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함께해요'를 진행했다. 올해 첫 활동으로 달력 만들기에 도전하며 주체적으로 한 해의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봉천

신입생 입학지원금 전달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10일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가정의 학생 44명에게 총 1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봉삼회 사랑나눔후원회를 비롯한 6곳 개인·단체의 후원과 해피빈 온라인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수업용 전자기기, 학용품, 교복 구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새 학기를 즐겁게 맞이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 일시 3월 18일(목) 19:00
4월 15일(목) 19:00
- 문의 02-3705-6045

노원 신규 프로그램

과정	일정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신규)	3월 31일-5월 12일(월-금) 9:00-17:50
GTQ - 포도삽 1급 자격증 취득과정	5월 7일-6월 23일(월·수·금) 19:00-21:00
밑반찬 조리 실무	4월 22일-6월 9일(수·목) 18:00-21:00
양식 브런치 메뉴 실습	3월 10일-4월 21일(수·목) 18:00-21:00

- 문의 02-951-0187 ※ 교육비 별도

영등포 집단상담 프로그램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구직여성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내일찾기, 희망설계' 과정을 연다.

과정	교육내용	교육일정
심화	취업 희망분야 탐색, 일자리 정보 활용	3월 8일(월)-10일(수)
		3월 22일(월)-24일(수)
기본	취업 동기 탐색, 직업 흥미 이해	4월 5일(월)-9일(금)
		4월 19일(월)-23일(금)

- 문의 02-858-4822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한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3월 24일(수)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4월 21일(수) 10:00-18:00	
아기돌보미	60세 이하 여성	3월 24일(수)-25일(목)	10만원
세이프맘		4월 21일(수)-22일(목) 10:00-18:00	
간병사	60세 이하 관련자격 소지자 우대	3월 23일(화) 4월 20일(화) 13:00-17: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CALENDAR

2021 **3**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위원회 재정부 11:00	4	5 · Access 영어교육(한꿈학교, 매주 월·금) 9:30	6
8 위원회 명예 11:00 역대이사 11:30	9 이사회 10:00	10	11	12 위원회 강남Y 11:00	13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27일)
15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16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7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18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여성능력개발팀 11:00	19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22 위원회 봉천Y 11:00	23 동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24 동분회원 신입교육 가사 10:00 아기돌보미·세이프맘 (~25일) 10:00	25 이사·위원 연구모임 14:00	26	27 · 카다리학교 정기모임 14:00
29	30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31			

CALENDAR

2021 **4**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Access 영어교육 (한꿈학교, 매주 월·금) 9:30	3	
5 식목일 위원회 명예 11:00	6 위원회 재정부 11:00	7	8	9	10 위원회·재교육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24일)
12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3 이사회 10:00	14	15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여성능력개발팀 11:00	16 위원회 강남Y 11:00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19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20 위원회 누리봄 10:0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동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21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동분회원 신입교육 가사 10:00 아기돌보미·세이프맘 (~22일) 10:00 동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22	23	24 · 카다리학교 정기모임 14:00
26 위원회 봉천Y 11:00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29	30	



2021년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2월 9일(화) 열린 이사회에서 이유림 회장은 16개 상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이다.

임원회

회장 이유림 부회장 한혜영 조연신
서기이사 이복희 정수경
회계이사 최한나 김재신
사무총장 양선희

총무팀

국장 김양선
부장 김미현 간사 조정현

상임위원회

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장 한혜영 사무총장 양선희

재정부

위원장 조연신 사무총장 양선희
부장 박미용 간사 백승자

여성참여팀

위원장 황선영 부위원장 전현숙
국장 최 불 부장 김예리

회원활동팀

위원장 이은령 부위원장 이희전
국장 이종미 부장 박혜리 간사 강수미

청소년팀

위원장 최한나 부위원장 배정미
국장 최 불 부장 양진화

국제협력팀

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 송길례
국장 최 불 간사 김진주

소비자환경팀

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신윤용
국장 이종미 부장 박진선
간사 김현숙 김보민

시설운영·사업팀

위원장 김명희 부위원장 임혜원
국장 김양선 부장 오점희
간사 배진영 박은지

평생체육팀

위원장 나순복 부위원장 이지선
국장 최 불 팀장 오경아

여성능력개발팀

위원장 이옥희 국장 김혜옥
부장 이인순 팀장 정승원
간사 김명순 사무직원 윤희경 박은숙

홍보출판팀

위원장 배은경 국장 이종미
팀장 성지희 간사 김현숙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황혜진 부위원장 현명금
관장 김은희
과장 김혜진 김철민
팀장 임한솔 김유진 강나영 최지희
사회복지사 김민지 조시원 김예솔
황소영 오진영 정유진 윤수화
박진주 최민영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김재신 관장 강민아
부장 방윤옥 과장 성윤수
간사 권영아 백미리 박미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이경연 관장 민혜경
부장 김현일 과장 성호숙
팀장 구수영
간사 이유리 이연서 최선미

강남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정선덕 부위원장 백향덕
관장 우영숙 과장 심혜영
팀장 강주현 이슬기
간사 김소망 정한솔 장취진
다함께키움센터 센터장 김미라

누리봄

위원장 정수경 부위원장 권혜진
시설장 백옥선 팀장 정은하
사회복지사 장혜미 윤미소 유현숙
김윤숙 김소담 이혜원

특별위원회

헌장개정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조종남

장학위원회

위원장 나순복

특별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국장 최 불

회원증모위원회

위원장 최한나 국장 강민아

큰장날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국장 김양선

회원걷기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나순복 관장 우영숙

모금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연신 국장 이종미 부장 김경화

복지사업단

YWCA 복지사업단 서울지부

위원장 한혜영 국장 김양선 간사 백승자

알림터

회원 소식

윤희경 여성능력개발팀
1월 19일(화) 시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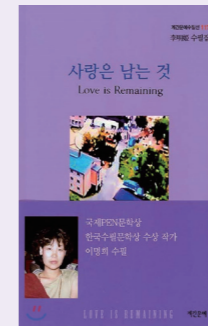
이복희 이사
1월 23일(토) 모친상

회원이 낸 책

사랑은 남는 것

이명희 명예이사 지음
계간문에 펴냄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박인환 시인의 그 유명한 시어다. 나는 그의 시를 좋아한다. 해서 읽고, 읽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앞뒤를 뒤집어 보게 되었다. 옛날은 가고 사랑은 남는 것으로... (113쪽)



국제PEN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작가로 시인이자 수필가인 이명희 명예이사의 네 번째 수필집이다. 제1부 주막의 노래 그 사랑, 제2부 일과 사랑, 제3부 사랑은 남는 것, 제4부 Noel, 그 겨울까지 모두 40편의 짧은 글을 만나볼 수 있다. 정종명 소설가는 “그의 수필은 대체로 길이가 짧다. 짧지만 작품 속에 장착된 파장은 길고 강렬하다. 어떤 작품은 시로, 어떤 작품은 소설로 다가온다. 시의 씨줄과 소설의 날줄로 디테일하게 새겨진 비유들이 그의 작품성을 특히 돋보이게 한다.”고 평했다.

회원 추천 시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아주 짧은 영어 2행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파리’이고 이 시를 쓴 사람은
미국 짧은 유머 시의 대가인 Ogden Nash입니다.

The Fly

God in his wisdom made the fly
And then forgot to tell us why.

파리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파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깜빡하셨다.

펜데믹을 겪으며 하나님이 깜빡하셨던 그 이유를, 그 쓸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시려고 인간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고 성가시지만 하고 보잘 것 없는 파리 같은 생명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자 이를 경고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꺼내 드신 경고장은 인간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미물 바이러스입니다. 그것들의 위력이 이다지도 대단하다니. 인간들이 미물이라 하는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 전 세계가 파죽음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치가 인간이나 미물이나 오십 보 백 보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다 더 진솔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보다 더 우리를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클_이원희** 역대이사

병원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외래 진료나 당일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에 동행하면서
복잡한 병원 업무를 편안히 도와드립니다.

-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서울 시내 병원
- **방법** 이용일 3일 전까지 전화상담 후 온라인 결제
- **비용** 기본 4시간 72,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www.ywcacare.com

검색창에 '서울돌봄과살림'을 검색하세요
- **문의** 02-3705-6071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택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2020년 생활돌보미 제명 회원

여성능력개발팀은 재교육 장기결석이나 활동부진, 자진탈퇴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사돌보미 34명

1-80기	강선미 김경순 김귀례 김미영 김연숙 김희자 나인덕 박명숙 박상임 손민인 양운숙 양정순 오덕숙 윤봉임 이경보 이미숙 이순분 이순희 이영희 임안명 장경옥 조성순 한향수
81-130기	고미숙 구본이 스페타 이달순 이재경 이향남 임향옥 정금순 정연지 최양순 한영심

산후조리사 20명

2-68기	김 윤 김순자 김재현 노민자 목복수 박영주 박지현 배향란 심상미 어영숙 어용선 윤영숙 이갑분 이윤남 이춘희 전영자 주재영 채병숙 한금순 허미경
-------	--

세이프맘 10명

3-25기	강미정 변명숙 유미순 윤기옥 윤원선 이명희 이성숙 장미선 최신옥 최중숙
-------	--

아기돌보미 13명

21-61기	김부국 김영옥 김용자 김윤행 송혜자 이지현 장순애 장정숙 조애경 최영희 최정숙 최혜숙 한옥란
--------	---

서울YWCA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tep1



카톡을 연다

Step2



검색창에서
서울YWCA를 검색한다

Step3



채널 리스트에서
서울YWCA를 추가한다

서울Y와 친구가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를 빠르고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아침 8시 피부를 저녁 8시까지-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진생 테크놀로지 기술을 담은 진생 에센스로
낮 동안 노출되는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보된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해 보세요



진생 컴플리트™



가공 방법, 성분, 효능이 다른
다섯 가지 인삼 성분에
진생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완성한 진생 에센스의 핵심 성분

12시간 안티에이징 효과

아침 8시의 빛나는 피부를 저녁 8시까지-
12시간 보습 지속력 확인,
12시간 피부 탄력과 피로도 개선 지속력 확인*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2021년 1월

특별 후원



일시후원

- 이연배 _ 이연배기금
- 따뜻한나무장학회 _ 장학금
- 뽀뽀통 _ 장학금
- (주)더부름 _ 장학금
- 김선자
- 변영희

정기후원

- 박미란 윤정자

물품후원

- 에이치앤제이 디자인스튜디오

복지사업단 후원



- 강명희 강민아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 김도근 김난희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한주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 배은경 변옥균 서혜영 석석옥 송순옥 심영자 양선희 양수경
- 양진화 오점희 오준호 우주훈 우호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 이관우 이명희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신 조정현
-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불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난민소녀 학교 보내기 후원



- 김정순 송순옥 월요카페 이홍자 임은유 정수경 조종남

핑크박스 후원



- 구영숙 박대화 배정미 염현경 오경아 우정현 이윤선 이재림
- 임지영 장영옥 정정심 전풍자 조순영 채서은 최경자
- 최유진(위호정)

북멘토링 후원



- 구영숙 권영아 권은정 김난희 김민아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박나영
-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선희 양진화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 월요카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종미 이푸른하
- 이희정 임재연 장영옥 전은금 정나미 정정심 최동수 최 불
- 최수경 최정우 최한나 한혜영

도서후원 정보아

월 CMS 후원



- 강윤우 강윤우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 강보경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 강윤희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창우 강춘호 강총모
- 강하자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미
-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욱 고현진 고홍애 고희준 공명주
- 공우재 곽동윤 곽민정 곽승희 곽지영 곽지훈 구미영 구범서
-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민석 권범찬
- 권성준 권영아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 권지민 권형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 길종선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희 김관욱 김광수 김귀숙
-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욱 김기욱 김기홍 김나영 김남미
- 김다임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량순
- 김말녀 김명숙 김명순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선 김민성 김민성
-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병호 김병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길 김봉희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 김선미 김선영 김선우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 김성민 김성애 김성우 김성은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 김세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정 김소희 김소희 김수림
-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선 김양숙 김연정 김에스터
-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미 김영순
-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혜 김예지
- 김옥매 김옥민 김옥순 김용갑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 김우인 김원경 김유리 김유진 김유진 김윤나 김윤숙 김윤주
-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의열 김익동 김인선 김자희 김재경
-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영 김재진 김정구 김정기
-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완
- 김정우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원
- 김종진 김종하 김주진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욱
-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 김춘자 김춘현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 김평배 김하은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홍우 김희숙

- 김화자 김화진 김효숙 김효은 김 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 남상화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소 노수연 노영식 노정자
-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주현 동지현 류아라 류종철 류 혁
- 류형정 마연희 마초희 명재미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 문미현 문영석 문영은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명자 민선기
- 민수현 민여진 민정애 민지훈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 박경옥 박경지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명순 박명원 박명윤 박미경 박미경
- 박미영 박민경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중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 박순규 박순애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슬
- 박은별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 박정원 박정희 박종길 박종인 박종화 박종희 박주희 박지수
-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찬영 박초순
- 박춘화 박태경 박태환 박현경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반미복 방혜영 배광순 배동숙
-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재호
- 배정미 배정숙 배정인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 백수정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변영순 변은수
- 봉진영 산드라운 서근배 서문세 서미화 서분이 서빛나 서승훈
- 서영미 서옥덕 서옥희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 서주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옥
- 석영미 석지윤 선정환 성경란 상대영 성덕화 성미은 성시옥
- 성연석 성연진 성윤수 성은숙 성익경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 성호숙 손봉희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광호
- 송길례 송병우 송보국 송상경 송선희 송성인 송세실 송영채
- 송욱의 송윤주 송은찬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중우 송주원
- 송창은 송태연 송하림 송하윤 송혜승 송혜영 송효수 송희승
- 송희재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진 신동하 신민자 신상우
- 신서현 신승은 신승주 신연식 신영순 신용자 신우람 신재은
- 신지윤 신정희 신충섭 신현미 신현수 심경호 심다영 심위현
- 심재원 심정자 심진수 안병세 안병수 안상호 안성포 안성훈
- 안승계 안영신 안영호 안외순 안윤희 안재숙 안정희 안주영
- 안주희 안지혜 안진영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 양근해 양기혁 양명옥 양선희 양수정 양영경 양영순 양영애
-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주희 양진영 양현옥 엄금란 여명진
- 여춘자 여현주 엄명경 엄문철 엄미행 엄윤희 엄은애 엄지수
- 엄지희 엄혜정 오규아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지영
- 오충민 오태영 오형래 온기석 왕정환 왕정식 우성도 우수경
- 우승현 우영숙 우은미 우정희 우현주 우후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경숙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영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승연 유승호 유연숙
 유원균 유은경 유은숙 유은정 유재미 유재순 유재현 유정선
 유정한 유주빈 유준형 유진선 유현숙 유희숙 유경례 유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승숙
 윤아름 윤은희 윤장범 윤재숙 윤정자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 혁 윤현진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정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건호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국열 이규택 이규화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도행 이동수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은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 이명옥 이명원 이명자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미지
 이미진 이미희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범석 이범재
 이병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선덕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수범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자 이순재 이순천 이슬기 이상민 이승연 이승일 이승재
 이승준 이승진 이승진 이승철 이승한 이승현 이승혜 이시현
 이신현 이이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예은 이옥경 이용숙 이용식 이용호 이원경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경 이재림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재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환
 이정희 이재욱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창준 이창희 이재진 이천희 이춘옥 이충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필영 이한기 이한성 이한승 이행남 이행자
 이현국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진 이혜진 이희남 이희진 임등자 임명희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희 임우택 임재영 임재원 임정자
 임정진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중현 임지현 임지현
 임지혜 임한솔 임현정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영규
 장영미 장영신 장영옥 장용익 장윤정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영 장화정 장희진 장희자 전민구 전복남 전봉숙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우오 전운숙 전은경 전은금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정연 전행옥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계숙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미희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주 정선희 정소영 정소희 정수경
 정순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심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태순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옥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정희주 제오복 조규성 조근묵
 조기숙 조길수 조남익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선영
 조성미 조성미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선 조예성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진영
 조진희 조춘숙 조하은 조현희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좌혜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주혜성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성호 차의철
 차지혜 차학주 채송화 채송화 채은주 채재호 채정림 채지영
 채지은 최광기 최두훈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불
 최봉수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희 최순근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안순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윤영 최유진 최윤희 최은주 최인숙 최정숙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호 최지희
 최태영 최현경 최현경 최현주 최혜련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하희영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금례 한다정 한민희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지현 한지희 한현식 한혜정 함경미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영록 허영숙 허 웅 허자영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영주 현은순 홍경화 홍낙기 홍성희
 홍수연 홍유진 홍윤서 홍은미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주)아이린애크퍼니 중앙이앤씨 (주)제이티
 (주)체험앙



주름은 따로. 제대로. 레티놀로.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후원 계좌 | 농협 386-01-020282 | 문의 02-3705-6041
 (예금주 :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매화 梅花 *Prunus*

장미과 Rose family 잎 지는 작은키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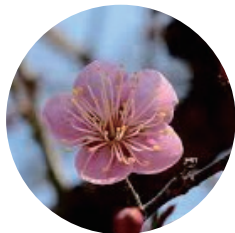
이른 봄 꽃샘 추위 속에 잎 보다 먼저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매화는 예로부터 동양에서
 매란국죽 梅蘭菊竹 사군자 四君子 중에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요.

모진 추위를 견딘 후에 맑은 향기를 피운다
 (매경한고발청향 梅經寒苦發清香)고
 옛사람들은 눈 속에 피는 설중매 雪中梅를
 매화 중에 으뜸으로 꼽았어요.

동양에서 이토록 사랑 받는데 비해 서양에서는
 '매화'라는 영어 단어가 따로 없어 Plum(자두)
 혹은 Purune(오얏)으로 표기하지요.

꽃 빛깔에 따라 백매 청매 홍매로 불리며 겹꽃도 있어요.
 열매인 매실로는 술을 담고 청을 만들어
 차로 마시거나 음식할 때 조미료로 써요.

글 이경순 명예위원



서울 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구인 가사돌보미·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3705-6013~5
 간병사 858-4516~7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or.kr 888-7983